

실천적 지식인 신채호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消長盛衰)의 상태를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역사를 빼어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지라.¹⁾

무엇을 '아(我, 나)'라 하고, 무엇을 '비아(非我, 남)'라 하는가? ……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을 '비아'라 하지만, 그들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은 '비아'라 하며 ……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²⁾



남궁원
서울고등학교
수석교사

단재 신채호는 사학자이자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의 행적을 찾아보고, 그의 행적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움을 얻고자 한다. 그의 본관은 고령이며, 호는 단재(丹齋) 혹은 단생(丹生) 혹은 일편단생(一片丹生)이라 하여³⁾ 그의 호에 붉을 단(丹)자가 들어 있다. 이는 그의 강고하고 단단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 『대한매일신보』, 1908. 8. 27./ 강승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1, 미래엔, 2025, 146p

2) 신채호, 『조선상고사』/ 노대환 외, 『고등학교 한국사』2, 동아출판, 2025, 48p

3) 정몽주의 단심가에 취하여 일편단생, 단생으로 스스로 지어쓰다가 뒤에 단재로 고쳤다(신용하, 「신채호의 생애와 사상과 독립운동」, 『계간사상』 1991 가을호)

그는 1880년 공주목 관할 지역[현재의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출생하였다. 조선 전기의 관리였던 신숙주의 후예이며, 아버지는 신광식, 할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正言)⁴⁾을 지낸 신성우이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교육받았으며,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읽었다고 한다. 학부대신 신기선의 천거로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문을 닦았으며, 1905년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다. 한편, 성균관에 몸담았던 초기에 독립협회에 가담하여 민권 의식, 국권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05년 장지연의 초청으로 『황성신문』⁵⁾의 기자로서 논설을 작성하였다. 『황성신문』이 정간되자 양기탁의 천거로 『대한매일신보』⁶⁾의 주필이 되어 항일 언론 활동을 펼쳤다.

지금 이 20세기 시대에 사는 민족으로서 오히려 중고시대의 정신만을 지키며, 중고시대의 물질만 지키어 중고시대적 국민을 면하지 못한 민족은 국가의 실력이 강대하고 사회의 문명이 발흥한 20세기 세계에서 쇠망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저 월남이 망하고, 버마가 전복되며, 중국이 쇠진해진 것 등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컨기를 국민 동포가 20세기 신국민(新國民)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바이며, 대저 20세기 국가 경쟁은 그 원동력이 한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 전체에 있으며, 승패의 결과가 한두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국민 전체에 있어서⁷⁾(하락).

위의 글은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한 글이다. 이 글에서 신채호는 20세기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세계이자 민족주의 세계, 그리고 자유주의 세계라고 정하고, 이에 부응하여 국민 각자가 자각하여 강력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00년대 초기 계몽주의적 성격의 지식인이 가진 사회진화론적 사고였다. 신채호는 1907년 성립된 비밀 결사인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기에 신민회가 지향하는 사상과 가치를 지니고 있

4) 정6품의 관직으로 국왕에게 간쟁과 논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5) 1898년 9월 남궁억 등의 유학파가 주축이 되어 창간한, 대한제국 시기의 신문이다. 국한문혼용체의 신문이었기에 독자층은 한문에 능한 지식층이었다. 1905년 이른바 을사늑약과 관련한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정간 처분을 받은 신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6) 1904년 영국인 기자인 어니스트 베델(한국명 배설)이 양기탁 등 애국 계몽 운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창간한 신문이다. 창간 직후에는 영문과 국한문을 함께하여 발행하였으나 1905년 하반기부터는 영문판과 국한문판을 분리하여 발행하였다.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에 항일적인 언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제의 제소로 베델이 재판을 받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7) 신채호, 「20세기 신국민」,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2일-3월 3일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9033628&menuNo=200019>

였으며, 거의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었던 그의 활동과 신민회는 동일한 정치적·사상적 지향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신국민」은 국민을 깨우쳐서 자강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글이다.

아울러 위의 글에는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경제의 건설을 추구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점차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는 상황에서 일본을 격퇴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국민 모두가 민족주의로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분석된다.⁸⁾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한 「독사신론」(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⁹⁾을 발표하여 우리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을 강조하였다. 민족사를 쓴다는 것은 민족의 주체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국가는 이미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단순한 혈족(血族)으로 전해져온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혼합한 여러 민족으로 결집된 국가일지라도 반드시 그중에 항상 주동(主動)이 되는 특별한 종족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나라가 나라로 될 것이다.¹¹⁾

신채호는 논설 집필 이외에도 역사 관련 서적을 저술하여 국민을 계몽하고자 노력하였다. 1907년에는 중국인 량치차오[梁啓超]의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을 번역하여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19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한 마치니, 가리발디, 카보우르의 애국 활동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권 회복의 애국심을 배양하기 위한 그의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훌륭한 인물이자 국난 극복의 영웅적 인물로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최영, 조선의 이순신을 선정하고 이들의 전기를 집필하였다.¹²⁾ 역사적 영웅들의 국난 극복의 활동을 소개하여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함은 물론 국권 회복

8) 신용하, 위의 논문

9) 신채호, 「독사신론」,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7일~12월 13일

10) 류시현, 「민족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이론-신채호의 「독사신론」」, 『내일을 여는 역사』 75호

11) 신채호, 「독사신론」, 『대한매일신보』

12) 『을지문덕전』,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전』, 『동국거걸 최도통전』을 집필하였다.

을 위한 활동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신민회 활동에 참여한 애국 계몽 운동가이자 언론인이자 학자였던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실천 활동이라 하겠다.

신민회가 국외인 서간도에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1910년 일제의 침탈이 날로 강화하는 가운데 신민회 지도부는 국외 이주를 준비하였다.¹³⁾ 이에 따라 신채호는 1910년대 상반기에 압록강 건너 만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학교 설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채호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 이상설과 이동휘 등이 설립한 권업회에 참여하여 권업회에서 발행하는 『권업신문』의 주필로 활동하였다. 1912년에는 윤세복, 이동휘 등과 함께 국외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본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두었으며, 만주에 지회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신규식의 초청을 받아 상하이에서 약 1년간 머물며 박달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영어를 공부하였으며, 또한 역사 연구를 지속하였다. 1914년에는 윤세복의 초청으로 서간도 환인현으로 이동하여 윤세복이 설립한 동창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한편, 서간도 지역에 있는 고구려와 부여의 유적을 탐방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곳에서 고구려의 유적인 광개토태왕릉과 환도성 등을 답사하였고, 이는 그의 고구려사 인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1915년에는 이회영의 권유로 베이징으로 이동하여 역사 연구를 계속하고 연구 서적을 편찬하였으며¹⁴⁾, 『중화보』, 『북경일보』 등에 논설을 발표하였다. 베이징에 머물던 시기인 1917년에 신채호는 박은식, 신규식, 조소앙, 신석우, 박용만 등과 함께 공화주의 성격의 내용을 담은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는 데 참여하였다.¹⁵⁾

1919년 국내에서 거족적 만세 운동인 3·1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통일적 조직체인 임시정부 수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는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임시의정원의 의원으로 활동했

13) 신민회 간부들은 1910년 3월 양기탁의 집에서 회의를 열어 국외 독립군 기지 창설을 결정하고 안창호, 이갑, 이동녕, 이동휘, 유동열, 신채호 등을 국외로 망명시키기로 하였다.(신용하, 위의 논문)

14) 이 시기에 신채호는 『사상변천론(思想變遷篇)』, 『강역고(疆域考)』, 『인물고(人物考)』 등을 저술하였다.

15) "용희황제가 삼보(三寶: 토지 백성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사이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이니 저 황제권이 소멸한 시점은 즉 민권이 발생이 발생한 시점이고, 옛 한국의 마지막 1일은 즉 신한국 최초의 1일이니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아득한 옛날 이래로 한국인의 한(韓)이요, 한국인이 아닌 자의 한(韓)이 아니다. 한국인 간에 주권을 주고받는 일은 역사상 불문법의 국법(國法)이요, 한국인이 아닌 자에게 주권을 양여하는 것은 근본적 무효로 한국인이 가진 성질상 절대 불허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23_0070)

으나, 이승만의 노선과 결별을 고하고 임시정부를 떠났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의 주필 요청도 거부하였다. 1919년 9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신채호는 임시정부와 결별하고 1920년 상하이에서 『신대한』을 창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심 독립 방략이었던 '외교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¹⁶⁾ 이후 그는 무장 투쟁적 성격의 단체를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베이징에서 박용만 등과 함께 제2보합단을 조직하였으며, 1920년 9월에는 박용만, 신숙 등과 함께 군사통일촉성회를 발기하여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단체들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1921년에는 김창숙 등의 지원으로 잡지 『천고』를 간행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1년~1922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회의(워싱턴 회의)에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이승만 등이 참여하여 우리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려 하였다. 이승만이 구미 위원부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었기에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참여했으나, 기대와 달리 강대국들은 우리나라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파리 위원부의 활동이나 구미 위원부의 활동이 지지부진해지자 독립운동가들은 외교론에 회의를 느꼈다. 이동휘 등의 무장 투쟁론자, 안창호 등의 실력 양성론자들의 비판이 일어나고, 중국과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은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1923년 1월 중국 상하이에서 70여 개 독립운동 단체의 124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¹⁷⁾ 의장에 김동삼, 부의장에 안창호, 윤해를 선출하고 회의에 돌입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이후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을 보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개조하자는 개조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완전히 부정하고 간도나 연해주 지역에 새로운 임시정부를 창조하자는 창조파의 대립이었다.

16) 신용하, 위의 논문

17) 신용하, 위의 논문

표 1 — 개조·창조파의 참가세력과 운동노선¹⁸⁾

	주요 참가 세력		주요 인물	主義	주요 입장		
					임정에 대한 태도	지향	운동 노선
개조파	상해의 개조파	임정 내의 개조파	안창호 등 서북파	민족주의	임정 인정	정부 개조 및 대독립당선건설	실력양성론
		상해파 고려 공산당	윤자영·김철수 등	공산주의	임정 인정	정부 개조 및 민족혁명당선건설	무장독립론
	서간도의 개조파 (서로군정서·한족회)		김동삼·이진산 등	민족주의	임정 인정	정부 개조	무장독립론
창조파	북경의 창조파 (북경군사통일회)		박용만·신숙·신채호	진보적 민족주의	임정 불신임	신조직 건설 (위원제정부)	무장투쟁론
	상해·노령의 창조파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김만겸 등	공산주의	임정 불신임	민족혁명당 건설	무장투쟁론
		대한국민의회파	문창범 등	공산주의	임정 불신임	신조직 건설 (위원제정부)	무장투쟁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독립운동가들은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누어 설전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 만주와 연해주 및 중국 내지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였다.¹⁹⁾ 신채호는 창조파의 입장으로 무장 투쟁을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임시정부의 위치는 만주나 연해주라고 생각하였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 개최가 확정된 시기인 1922년 말에 신채호는 의열단²⁰⁾의 단장인 김원봉으로부터 의열단의 선언문을 집필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신채호는 의열단 측의 인사인 유자명과 더불어 의열단에 대한 활동과 지향점을 들은 후 이른바 의열단의 활동 지침서인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였다.

18) 趙激行, <국민대표회(1921~1923)연구>《史叢》44, 고려대, 1995), 163~167쪽.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48, 144p 재인용 (https://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nh_048_0030&fileName=nh_048_0030.pdf#page=2)

19)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이끌어갔던 주요 인물이 김구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연수』 제119호(2025년 봄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대한의 완전한 독립을 추구한 김구.’)

20) 민중의 직접적 폭력 혁명에 의한 독립을 추구하는 단체로,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결성된 비밀 결사이다.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이 제조한 혁명의 원인이 산같이 쌓여 있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몰아내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교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²¹⁾

위의 선언에서 신채호는 '강도 일본'을 타도하기 위하여 '민중의 직접 혁명'이 불가피하여, 이의 실천 방안의 대상 혹은 목적으로 '5파괴 7가살'을 설정하였다.²²⁾ 일제 강점기 일본 통치의 총체인 조선총독부, 경제 수탈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각 경찰서 등이 파괴의 대상이었고, 조선 총독, 매국노, 친일파의 거두 등이 살해의 대상이었다. 주요 의열단원으로는 1919년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박재혁, 1921년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김익상, 1923년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김상옥, 1924년 일본 도쿄의 왕궁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 그리고 1926년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등이 있다.

신채호가 집필한 「조선혁명선언」에는 무정부주의적인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 민족 생존의 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설정하고 오직 '민중 직접 혁명'에 의해서만 이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서는 아마도 의열단장인 김원봉은 물론 의열단원의 활동과 잘 맞아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채호가 포함된 창조파는 1923년 6월 회의를 열고 새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행정부에 5명의 국무위원회를 조직하고 김규식을 행정 수반으로 하였으며, 입법부인 국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윤해 등 33명을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신채호, 박은식, 이동휘 등 30명을 고문으로 추대하였다.²³⁾ 그러나 새 임시정부의 활동은 기록하지 않았다. 개조파의 비판을 받았으며, 1923년 8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갔지만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우려한 소련의 비협조 속에서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21)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노대환 외, 『고등학교 한국사』2, 동아출판, 2025, 32p

22) 5파괴는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조선총독부 기관지), 각 경찰서, 기타 왜적 주용기관이다. 7가살의 대상은 조선 총독 이하 관리, 군부 수뇌, 대만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적탐(밀정), 반민족적 지주와 자본가 등이다.

23) 신용하, 위의 논문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간 신채호는 절망감에 빠져 보내다 절에 들어가 승려의 길을 걸기도 하였으며, 마침내 자신의 길이 한국사 연구에 있음을 깨닫고 역사 연구에 매진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 등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신채호의 역사 연구는 식민 사학을 극복하는 민족주의 사학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려는 것,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보는 시각 등에서 식민 사학을 극복하려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신채호는 1920년대 후반,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결집한 문학적 창작열의 결과로 『용과 용의 대격전』, 『꿈하늘』 등 사상 소설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에서는 무정부주의적인 논리가 드러나며 자유, 평등, 폭력 등을 예찬하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신채호의 문학 작품과 관련한 연구 성과들이 있다.²⁴⁾ 무정부주의적 경향의 소설 집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채호는 1926년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였으며, 1927년 텐진에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6개국 민족 대표들이 무정부주의 동방 연맹을 조직하자 이필현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후 1928년에는 한국인 중심의 무정부주의 동방연맹 북경 회의를 개최하여 선언문을 발표하였다.²⁵⁾ 무정부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선전기관 설립과 폭탄 제조소 설치를 결의하고 자금 마련에 힘썼다. 그러나 타이완에 상륙하다가 1928년 5월 외국위체위조사건(外國爲替偽造事件)의 연루자로 체포되어 따렌(大連)으로 이송되었다. 1930년 5월 따렌 지방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 받고 뤄순 감옥(旅順監獄)으로 이감되어 복역하다가, 1936년에 뇌일혈로 순국하였다.

한편, 이관용이라는 사람이 면회를 신청하자 신채호는 그에게 H.G. 웰즈의 『세계문화사』, 『에스페란토 문전』, 『윤백호집』 등을 구해서 감옥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²⁶⁾ 이는 신채호가 감옥에서도 여전히 역사 연구와 무정부주의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다. 하지만 차가운 감옥에서의 생활은 편하지 못하였고, 신채호의 심신을 갉아먹었다. 1935년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신채호는 결국 1936년 2월, 뇌일혈로 쓰러졌으며 얼마 후 곧 사망하였다.

24) 김현주,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영웅의 변모양상 연구」
김주현, 「신채호와 시문-혁명과 해방의 문학적 지향」
양진오, 「영웅의 호출과 민족의 상상」

25) 신용하, 위의 논문

26) 신용하, 위의 논문

신채호는 언론인이자, 민족주의 사학자이자, 조국의 광복을 실현하고자 동분서주하였던 독립운동가였다. 언론을 통하여 민족과 국민을 계몽시키고자 하였고, 우리 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을 실천하고 연구 성과를 집필해낸 역사 연구자였으며, '강도 일본'을 타도하여 독립을 쟁취하려 한 독립운동가였다. 실천적 지식인의 삶을 보여준 신채호에 대하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교과서별 서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 읽기

신채호의 역사관

국가의 역사는 민족 소장성쇠(消長盛衰)의 상태를 서술한 것이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빼면 민족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참으로 무겁구나.

20

- 신채호, 「독사신문」 -

〈 동아출판, 한국사1, 155p 〉

조선 혁명 선언(일부)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이 제조한 혁명의 원인이 산같이 쌓여 있다. 언제든지 민족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몰아내지 못하면 물려서지 않으리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교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5파괴

1. 조선 총독부
2. 동양척식주식회사
3. 매일신보(조선총독부기관지)
4. 각 경찰서
5. 기타 왜적 중요 기관

*5파괴 7가살 | 의열단의 행동 목표

7가살

1. 조선 총독 이하 고관
2. 군부 수뇌
3. 대만 총독
4. 매국노
5. 친일파 거두
6. 적탐(일정)
7. 반민족적 지주와 지분가

〈 동아출판, 한국사2, 32p 〉

신채호, 박은식 등 민족주의 사학자는 민족정신을 강조하였다.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집중하여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을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근대사 연구를 통하여 민족혼을 강조하였다.

〈 동아출판, 한국사2, 48p 〉



신채호

무엇을 '아(나)' 라 하고, 무엇을 '비아(남)'라 하는가?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을 '비아'라 하지만, 그들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은 '비아'라 하며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 신채호, 「조선상고사」 -

〈 동아출판, 한국사2, 48p 〉

일제의 침략으로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국사·국어 등 국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신채호, 박은식 등은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중을 계몽하는데 힘썼다. 특히 신채호는 『독사신문』을 지어 국왕 중심의 유교적 역사 인식을 극복하고 민족을 중심으로 한국사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구국 위인전을 써서 애국심을 일깨웠다.

〈미래엔, 한국사1, 146p〉

신채호의 「독사신문」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消長盛衰)의 상태를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역사를 빼어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개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지라
 -『대한매일신보』, 1908. 8. 27.-
 〈미래엔, 한국사1, 146p〉

일제의 식민 사관에 맞서 박은식, 신채호 등은 민족주의 사학을 하였다. 이들은 역사를 통해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민족사를 연구하였다. 박은식은 '조선 국혼'을 강조하면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독립운동을 정리하였다.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저술하였다.
 〈미래엔, 한국사2, 52p〉

신채호는 역사가 애국심의 원천이라 하면서 『수군 제일 위인 이순신전』, 『을지문덕』 등의 전기를 지었다. 또한 「독사신문」에서 민족을 역사 전개的主체로 강조하며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고, 일본 역사서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일부 국사 교과서를 비판하였다.
 〈비상교육, 한국사1, 138p〉



① 『을지문덕』(1908, 국립 한글 박물관)

〈비상교육, 한국사1, 138p〉

이러한 가운데 신채호, 박용만 등의 무장 투쟁 세력은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문제 삼아 임시 정부의 개편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 운동가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고 1923년 1월 국민 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상교육, 한국사2, 36p〉

참조 III 신채호

현재 우리 민족은 적극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임시 정부를 개조하는 방식으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임시 정부는 독립운동 색채 전변과 연계가 부족합니다. 임시 정부의 체제나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등 개조하는 것만으로는 독립운동을 지도할 유능한 기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제정하여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합니다.

〈비상교육, 한국사2, 37p〉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제의 통제가 강화되자, 1907년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은 국권 회복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했다.
 〈천재교육, 한국사1, 144p〉

신채호, 박은식 등은 근대 계몽 사학을 발전시켰다. 특히 신채호는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 인물들의 전기를 편찬해 민족 자긍심을 고취했다. 또한 《이태리 건국 삼걸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서를 번역해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일깨웠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을 게재해 역사 서술의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고 민족주의 사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천재교육, 한국사1, 157p〉

독사신문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서술하는 것이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그 민족의 애국심이 사라질 것이니, 역사가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 역사를 쓰는 사람은 먼저 민족의 형성 과정을 적고, 정치는 어떻게 변영하고 어떻게 쇠퇴했는지, 산업은 어떻게 융성하고 쇠퇴했는지, …… 만일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라.

- 신채호, <독사신문> -

의열단은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폭력 투쟁을 통한 민족의 직접 혁명을 추구했다.

〈천재교육, 한국사2, 39p〉

〈천재교육, 한국사1, 158p〉

박은식과 신채호는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박은식은 나라의 정신으로 혼(魂)을 강조하였다. 신채호는 『독사신문』을 발표하여 민족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내세웠고,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위인전을 저술하였다.

〈씨마스, 한국사1, 138p〉



▲ '을지문덕전'과 '을지문덕 삽화'

〈씨마스, 한국사1, 138p〉

한편 1917년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등 14명이 여러 민족 운동 단체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대등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민족 운동가가 단결하여 공화정에 바탕을 둔 임시 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하였다.

〈씨마스, 한국사2, 30p〉

신채호 등은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위임 통치 청원서를 문제 삼아 임시 정부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씨마스, 한국사2, 34p〉

자료 10 의열단과 조선 혁명 선언

우리는 의교, 준비 등의 헛된 꿈을 버리고 민족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족 속으로 가서 민족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한다. 또한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단재 신채호 전담(하)」 -

▶ 신채호



〈씨마스, 한국사2, 41p〉

신채호, 『독사신문』 서문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서술하는 것이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그 민족의 애국심이 사라질 것이니, 역사가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 『대한매일신보』, 1908. 8. 27.

신채호(1880~1936)

『독사신문』을 발표하여 민족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내세워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고,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구국 위인전을 집필하였다.

〈지학사, 한국사1, 142p〉

역사 탐탐 「조선 혁명 선언」에 드러난 의열단의 독립 방법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애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 이제 폭력·암살·파괴·폭동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할진대, 조선 총독 및 각 관공리,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경찰노, 매국적 적의 일체 시설물 ……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신채호 「조선 혁명 선언」



▲ 신채호

〈지학사, 한국사2, 43p〉

- ① 자료에 나타난 의열단의 파괴 대상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 ② 자료에서 의열단의 활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신채호 평가

- 다른 종족을 끌어들이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바이거늘. 슬프다! 우리나라 역사가여! 이를 아는 자가 매우 적구나. - 신채호, 『독사신문』
- 김춘추가 고구려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니, 이에 신라가 고구려·백제 양국 사이에서 고립되어 어쩔 수 없이 바다 건너 당과 동맹하게 되었다. …… 당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아들인 법민·인문 등을 당에 인질로 남게 하였으며, 신라의 의관(衣冠)을 버리고 당의 의관을 쓰며, 신라의 연호를 버리고 당의 연호를 쓰니…… 사대주의의 병균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 신채호, 『조선상고사』

〈해냄에듀, 한국사1, 21p〉

박은식과 신채호 등은 근대 역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신채호는 「독사신문」을 집필하여 왕조 중심의 역사관을 뛰어넘어 민족주의 역사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같은 민족 영웅들의 전기를 저술하였다. 한편, 망국의 위기 속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월남 망국사』, 『미국 독립사』, 『이태리 건국 삼걸전』과 같은 외국의 흥망사들이 번역되기도 하였다.

〈해냄에듀, 한국사1, 150p〉



◀ 박자혜

총독부 의원 간호 부로 근무하던 중 3·1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풀려난 후 베이징으로 갔다가 신채호와 결혼하였고, 의열단 활동을 지원하였다.

〈해냄에듀, 한국사2, 14p〉

최근 평화 회의와 국제 연맹에 대한 외교 활동이 오히려 2천만 민중의 독립 의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전부 빼앗겨 입과 먹을 것도 없는 때에 무엇으로 실력을 쌓고 군인을 양성하겠습니까? 강도 일본을 쫓아내는 길은 오직 혁명, '민중 직접 혁명'뿐입니다.

- 신채호, 「조선 혁명 선언」

〈해냄에듀, 한국사2, 19p〉

▶ 역사 위키 의열단의 정신, 「조선 혁명 선언」



▲ 의열단창의 모습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며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 신채호 「조선 혁명 선언」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1923)에는 의열단의 독립운동 이념과 방법이 잘 나타나 있다. 신채호는 이 선언에서 혁명은 민중의 직접 불기에 의해 가능하고, 의열 투쟁은 이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혁명 선언」은 의열 투쟁 시 폭탄, 총과 함께 휴대하는 필수품으로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불렀다. 이는 의열단이 활동한 국내, 중국, 일본 등 각지에 널리 퍼져 국내외 동포들의 독립 의식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해냄에듀, 한국사2, 26p〉

또한 이승만이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채호, 박용만 등은 임시 정부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이에 1923년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국민 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임시 정부를 해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는 신채호 등의 창조파와 기존의 임시 정부를 개편하는 선에서 유지하자는 안창호 등의 개조파로 나뉘었다.


〈 리베르스쿨, 한국사2, 40p 〉

[자료 1] 파괴를 통한 건설을 꿈꾼 의열단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 우리가 일본 세력을 파괴 하려는 것이 제1은 이족(異族) 통치를 파괴하고자 함이다. …… 제2는 특권 계급을 파괴하고자 함이다. …… 제3은 경제 약탈 제도를 파괴하고자 함이다. …… 제4는 사회적 불평등을 파괴하고자 함이다. …… 제5는 노예적 문화 사상을 파괴하고자 함이다. …… '이족 통치', '약탈 제도'의, '사회적 불평등', '노예적 문화 사상'의 현상을 타파함이니라. 그러한즉 파괴적 정신이 곧 건설적 주장이라. -신채호, 『조선 혁명 선언』, 1923

〈 리베르스쿨, 한국사2, 45p 〉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모든 교과서에 신채호가 실려 있다. 대체로 역사 연구자로서 활동한 내용과 독립운동가로서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한 내용, 그리고 의열단의 활동 지침서인 「조선혁명선언」 작성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서 다양한 글을 작성하여 국권을 상실해가는 시기에 애국심 고취와 국권 회복을 위한 국민적 각성과 참여를 촉구한 언론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분명 성균관 박사로 학문을 연구한 학자였지만, 학문에 머물지 아니하고 비밀 결사인 신민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점,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한 점 등으로 보아 그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한 실천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교사로서 역사를 통해 학생들과 만나며, 학생들이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이나 교양을 쌓기 위함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자 함이며, 오늘의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함이다. 우리는 신채호의 삶을 통하여 참된 지식인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되새겨보게 된다. 국권을 상실한 시기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무엇이었는가? 

참고 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48(『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https://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nh_048_0030&fileName=nh_048_0030.pdf#page=2)
- 신용하, 「신채호의 생애와 사상과 독립운동」(『계간 사상』, 1991년 가을호)
- 배우성, 「조선후기 역사학과 신채호, 그리고 21세기」(『한국학논집』 제43집, 2011)
- 류지아, 「신채호의 민중혁명론과 역사인식」(『역사와 세계』 35, 2009)
- 박결순, 「신채호의 아나키즘 수용과 동방피압박민족연대론」(『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8집, 2011)
- 이호용, 「신채호의 아나키즘」(『역사학보』 제177집, 2003)
- 교과서(신채호 관련 서술 내용,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사용 한국사 교과서)
 - 노대환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 155p, 동아출판
 - 노대환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 32p, 48p, 동아출판
 - 강승호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 146p, 미래엔
 - 강승호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28p, 34p, 52p, 미래엔
 - 도면희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 138p, 비상교육
 - 도면희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37-38p, 40p, 비상교육
 - 정요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 144p, 157-158p, 천재교육
 - 정요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39p, 천재교육
 - 신주백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 138p, 씨마스
 - 신주백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30p, 34p, 41p, 씨마스
 - 송호정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 142p, 지학사
 - 송호정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43p, 지학사
 - 조한경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 21p, 150p, 해냄에듀
 - 조한경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14p, 19p, 26p, 해냄에듀
 - 김보림 외(2025). 고등학교 한국사2 교과서, 40p, 45p, 리베르스쿨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서울 골목길 인문학과 융합 수업에 관심이 많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였다.

선생님,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나의 부족함이 학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더 멋진 수업, 더 특별한 교실을 꿈꾸지만

때로는 그 기준이 나를 작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실이 항상 재밌고 특별해야 하죠?

매일 먹는 집밥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든든한 하루.

그저 일상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교실에 가장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담담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학생들에겐 가장 소중한 배움입니다.

오늘도 교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모든 보통의 교사를 응원합니다.

● **지학사** X **학교 한줄**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7년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 2024년 발행 부수 기준

Mirae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터처
www.m-teacher.co.kr

